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사랑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인력'



031-759-5588

제45호 | 발행일 : 2011. 5. 2.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전국 최고 의류클러스터 만들겠다”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홍기섭

|                            |    |                            |     |
|----------------------------|----|----------------------------|-----|
| 0 '섬유산업의 신화를 새롭게 쓴다'       | 3면 | 0 나눔으로 행복한 공경제 만들어         | 9면  |
| 0 성남 판교지구 2단계 지적공부 확정      | 4면 | 0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이웃사랑 '와제'    | 10면 |
| 0 손학규 당선자, '봉합의 정치 실현하겠다'  | 7면 | 0 분당구 건강 관심도 경기도내 '최고'     | 11면 |
| 0 성남지역 현안 해결의 파수꾼 '성남발전연합' | 8면 | 0 중원구 도합동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순양' | 14면 |

### INDEX

## '박물관 순례로 배우는 청소년 인문학 기행' 참가자 모집



박물관 순례로 배우는 청소년 인문학 기행 은 매월 마지막주 놀토에 학교밖 세상을 만나는 청소년 기행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박물관 순례는 북한강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서 만나는 실학박물관, 인류 기호용료인 커피의 모든 것을 둘러보는 커피박물관, 자연생태학습장과 곤충의 세계로 안내하는 거미박물관으로 떠납니다.

0 박물관 기행 남포계차  
 양곡문화재단(인선동 · 행정리분관 10% 할인, 버스 · 보행 · 점심 제공)  
 신청 132-062-25470 계곡주 22명(성남시내외지역)  
 0 순례 기행지 갈매, 커피와 거미 박물관  
 0 2011년 시간: 5월 28일(토) 오전 10시  
 0 2011년예산 장소: 수성구 대안동 3600번지 주민센터 1층  
 (성남교보문고 4구역 대안동 방학 낙산사/아미 방동)  
 0 문의처: 경기도교육청,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0 행사 문의: 031-721-4998

0 당일 방문 일정  
 09시 0시 2011아-비행장으로 출발  
 04시 20분 다산 정약용 실학박물관(관람료, 특급)  
 10시 30분 커피 박물관(관람)  
 12시 맛있는 점심  
 01시 14시 휴식  
 02시 자연생태학습장 및 곤충  
 04시 30분 점심으로 출발  
 04시 30분 2011년 5월 28일

후원: 성남일보 성남청소년창의스쿨

성남,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우수기관' 식약청 표창수여

성남시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돼 28일 충북 청원군 오송에서 열린 '식약청,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 결과 시상식'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21개 시·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동안 식생활안전, 식생활영양, 식생활 인지·실천수준 등 3개 분야의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를 20개 세부평가 지표로 조사·평가한 결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남시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148개교 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보호구역에 18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배치해 전개한 식품취급업소 계도·점검 활동 성과에 큰 점수를 줬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사업과 학교매점에 과일보관 냉장고 지원 사업 등은 학교주변의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금지와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 휘발유값 인하... 소비자 체감 '낙제'

## 성남, 소비자시민모임 실태조사 '눈길' 인하업소 60%... 23% 오히려 가격 인상

지난 7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 내렸다는 정유사들의 보도와 달리 휘발유 가격 인하 체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대표 김경의)가 지난 13~14일 양일간 성남지역 주유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개소중 100원을 내린 업체는 불과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을 인하했다고 한 지난 7일 이후 가격 비교를 해 본 결과 가격이 인하된 업소가 18개소(60%)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가격을 올린 주유소가 7개소(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SK에

너지는 조사대상 주유소 9곳 중 7곳이 오히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곳도 가격인하 발표 전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캐쉬 백 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추후에 리터당 100원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가격 인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고객은 가격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마다 56원~162원, GS칼텍스는 25원~100원 인하했으며, S-오일은 50원~80원을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가격이 인하한 주유소 18곳 중 3곳을 제외하고는 가격인하 폭이 리터당 100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주유소 18곳 중 10곳(55.6%)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영 주유소는 12곳 중 8곳(66.7%)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보다는 직영 주유소가 가격인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남소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인하 발표는 소리만 요란할 뿐 정작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정유사들의 휘발유 가격인하 발표는 소리만 요란할 뿐 정작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 하대원시장, 상인대학 '가동'

시장경제진흥원 지원... 상인 71명 입학식 개최

성남시 증원구 하대원시장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상인대학으로 선정돼 지난 19일 하대원동 주민센터에서 '상인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상인 71명이 학생으로 참여하는 '하대원시장 상인대학'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2회, 총 45시간동안 전통시장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 하대원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본과정인 하대원시장분석, 서비스 의식, 서비스 표현력, 상인 조직 의식, 선진시장 사례, 도매시장 마케팅, 점포환경전략, 고객불만관리, 서비스 워크숍 등과 ▲심화과정인 대형유통업체 전략적 분석, 고객 맞춤형 대, 현장 Case Study, 해외선진시장 분석, 스트레스 관리, 상인 리더십, 고객성향분석, 성공시장 전략 등이다.

상인대학 운영은 한남대학교(책임교수 이덕훈)가 맡아 각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초빙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한편 하대원시장 상인대학 명예학장으로 위촉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상인대학 교육을 경영마인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하대원시장을 활성화하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라며 "시장의 책임자로서 성남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광주, 시민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5일부터 체험교실 운영... 선착순 100명씩 진행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해 청석공원에서 시민도자기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

혔다. 이번 도자기 체험교실에서는 필통, 컵 등 도자기 만들기와 물레체험 등이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광주시 관내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오전, 오후 각 100명씩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올해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4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성남 벤처기업 CEO 간담회 '성료'

성남시는 지난 25일 시청 율동관에서 '성남벤처 1천시대 벤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지역에 소재한 23개 벤처기업 CEO가 참석해 생산제품과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벤처기업은 활력이 넘치는 청년기로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술집약적이고

수출 중심이다 보니 중소기업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남시는 벤처기업의 생산과 판로 개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각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확대해서 지역 안에서 사람과 재화가 흐르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INTERVIEW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홍기섭**

전국 최고 의류클러스터 정착... 섬유산업 진흥 예산지원 절실

# “섬유산업의 신화 새롭게 쓴다”



“7개 섬유산업은 A형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인 섬유산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1일 제3대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홍기섭 이사장(54)을 만나 성남섬유산업의 미래에 대해 물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섬유조합의 활동에 대한 일상을 해 주시죠.**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5월 성남에 사업장을 둔 섬유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했습니다. 당초에는 자원조합 소속인 사업조합으로 출범했으며 초대 이사장에는 신형 이사장이 맡아 주석을 맡았고 2대 박유삼 이사장, 그리고 제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역대 이사장들이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성남에서 섬유조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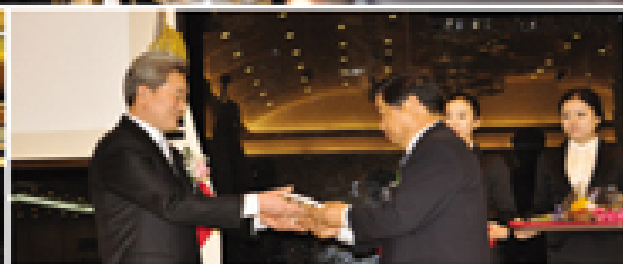
**- 섬유조합의 현황은.**

현재 조합은 7개 업체에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5개업체의 섬유업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1만 여명이며 성남시 산업구조 분포상 21%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섬유산업의 위상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섬유조합이 추진한 사업을 이야기 하죠.**

우리 조합의 대표적 사업인 의류클러스터협동조합 사업은 종합 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의류분야 전국 최초의 클러스터사업으로 산·관·학 협치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공



인대학교 등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출항섬유산업을 비롯해 10개 업체가 클러스터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사업은 10년에 걸쳐 5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성남섬유산업을 현대적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동안 섬유조합의 성과를 꼽는다면.**

섬유조합 제조의기회를 맞아 성남시 지역특화산업으로 섬유산업의 부흥을 위한 ‘성남 섬유업 2030.채과 및의 촉제’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어 있습니다. 이는 섬유산업과 조합

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록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서도 우리 조합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협동조합 사업으로 의류클러스터 협동조합사업 운영과 무형제 니트·의류편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는 협동조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동브랜드 런칭과 공동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앞으로 조합은 다자언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과 공동 마케팅의 활성화, 섬유 및 의류사업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세안디자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관내 섬유인들의 의견을 모아라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맞아 지자체의 역할이 있죠.**

본격화 되고 있는 지방자치재는 지방재정의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어운 실정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공동사업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성남지역의 대표적인 사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안차3차 클러스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섬유산업을 위한 세신 지원센터 설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섬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합을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죠.**

기업이 생산성을 혁신하는 최의의 여건은 동일 지역내의 입지 환경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인 차별적 지위와 운영의 효율성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약 지원기관을 관내 대학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신규 인력 공급이 원활치 않은 섬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성남 판교지구 2단계 지적공부 확정

## 174필지 338,723.5㎡ 규모... “토지대장 등본 발급길 열렸다”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구간 174필지(338,723.5㎡)의 지적 공부가 지난 20일 확정·정리돼 입주자의 소유권 등기가 다음달 중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분당구는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공사)가 판교택지개발 2단계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월 31일 신고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열흘간 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성남시보 등에 지적 확정과 신지번 사용, 종전토지에 대한 지적 공부 폐쇄 정리를 시행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174필지(338,723.5㎡)는 판교동 134필지(131,606.1㎡), 삼평동 28필지(137,598.9㎡), 백현동 12필지(69,518.5㎡) 등이다.

반면, 723필지(339,336㎡)는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 정리됐다. ▼판교동 323필지(132,683㎡) ▼삼평동 289필지(136,529㎡) 필지 ▼백현동 111필지(70,124㎡) 필지가 해당된다.



이번 지적공부확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에 대한 잔금납부가 완료된 입주자들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 내 등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해태기간에 따라 차등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검점과 확인과정을 통해 2단계 사업구간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을 확정했다”면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단계 구간 지적 공부

확정 정리에 이어 이번에 2단계 구간이 완료돼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지적 확정 면적은 총 사업면적 8,922,922.1㎡(2,699,184평) 가운데 98%인 8,731,951.9㎡(2,641,415평)가 완료됐다.

마지막 3단계 구간인 판교역사부지(알파돔시티) 190,970.2㎡(57,769평) 등은 2012년 12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 성남 중소·벤처 기업 중시장서 ‘선전’

## 중국 수출상품교역회 7개사 참가... 1천6백만불 수출 계약

중국 최대 무역전시회인 수출상품교역회(캔톤 페어, Canton Fair, 廣州交易會)에서 성남시 중소·벤처 기업들이 각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천6백만불의 상담 및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냈다.

성남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중국수출상품교역회관에서 열린 ‘2011 캔톤페어’에 관내 중소·벤처 기업 7개사를 파견했다.

성남기업들은 이번 교역회에서 자동포장기, 샤워기 및 주방필터, 세탁볼, 산소발생기, 숨쉬는 페인트, 스폰지 문풍지, 타이어 공기압 자동장치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여 전 세계에서 모여든 20여



만명의 세계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아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고려종 델리스(주) 대표는 “그동안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무척 힘들었는데 캔톤페어와 같은 경쟁력있는 전시회에 참가하게 돼 구매력을 갖춘 외국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펌케익 자동포장기 등 자사제품을 500만불(55억원)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캔톤페어에서의 관내기업 1천6백만불 수출상담 성과는 지난해 1천5백만불 수출실적보다 5% 증가한 성과라 매우 고무적”이라며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스마트미디어 양성교육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KT는 업무 공조의 일환으로 스마트미디어 전문개발자 양성교육인 ‘에코노베이션 스마트 스쿨(Econovation Smart School)’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코노베이션 스마트 스쿨’은 KT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등과 협업을 맺고 전국적 규모에서 스마트미디어 전문 개발자 그룹

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현재 경기모바일센터, 서울앱개발센터 및 KT 에코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IOS / 안드로이드 기반 앱개발 및 마케팅 실무 등 다양한 과정을 맺고 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경기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세’

## 1분기 기준 3,983만㎡... 지가 총액 6.1조원

경기도의 지난 1/4분기 기준 외국인의 소유 토지가 3,983만㎡로 지가총액 기준 6조 1,372억원에 이르렀고, 작년 말 대비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분기 도내 외국인 토지취득 건수는 870건, 97만 2,180㎡이며 지가는 3,593억원 규모이다. 1/4분기 순 증가는 757건 89만1,380㎡로 지가는 3,420억원에 이른다.

1/4분기 토지매도는 113건, 8만800㎡이며 지가는 173억원이다.

소유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43만㎡(44.3%), 순수외국인 5만㎡(5.2%), 합작법인 15만㎡(15.5%), 순수외국법인 34만㎡(35%) 순으로, 주로 교포의 투자목적 소유이거나, 순수외국법인과 국내의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를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성남,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 야탑역 등 주요 환승지 22개 택시업체 합동단속

성남시는 법인·개인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두달동안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를 집중 단속에 모두 3,068건을 적발 또는 계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영업에 대한 관내 운수종사자의 의식변화와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관내 22개 택시업체, 성남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함께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운수종사자 100명이 포함된 7개조 총 130명의 단속반을 꾸려 앞으로 두달간 매일, 관외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삼주 및 순회 단속한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불법행위를 통보해 40만원의 과징금 처분토록 조치한다.

# ‘하늘북카페’ 시민문화공간 정착

## 평균 300여명 방문... 공공기관 청사개방 벤치마킹 각광

성남시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옛 시장집무실을 개조해 만든 9층 하늘북카페가 시민 문화쉼터로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성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9천여권의 책을 맘껏 골라 읽을 수 있는 887㎡규모 하늘 북카페는 지난 7월부터 하루평균 300여명이 찾아 최근까지 4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했다.

야간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 하루 평균 40~50여명의 시민이 밤 10시까지 불을 밝히고 열광한다.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시청종합홍보관, 일반시민

에게 개방한 체력단련실, 청사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벚꽃 등으로 인해 성남시청을 찾는 이가 부쩍 늘어 하늘북카페는 시민편의시설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이곳을 현장 학습코스로 삼아 독서와 함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체력단련실이나 탄천 등에서 운동을 하던 이들은 북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긴다.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들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같이 독서를 하는 공간으로, 수험생들은 야간 학습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한다.

특히 북카페는 시민시설로 개방돼 청사편적을 줄인 선두

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50여개 기관과 단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가 수원시, 안산시 등 9개 공공기관이 북카페를 설치 운영하고 나섰다.

시는 북카페의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경기도 정보기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심의를 통해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 노트북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청은 북카페 개방과 함께 각종 회의실 시민 무료개방 등으로 날마다 시민들로 북적인다”면서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청사 분위기는 그동안 호화청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내 시민들의 생활 속 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분당구 ‘청소년 문화 존’ 운영

### 성남, 길거리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일대가 매주 토요일 ‘청소년 문화 존(zone)’으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모두 18차례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문화 존(zone)’ 행사가 열리는 날 성남 문화의 거리 일대에는 프리마켓, 최신 IT체험, 로드카페, 청소년 거리 공연 등이 열린다.

저명인사 소장품 경매이벤트, 청소년 거리카페, 커피공예 체험, 최신IT기기 체험, 청소년 댄스·음악 거리공연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수정·중원·서원·정자·관교 청소년수련관 등 5개 단체는 각각 ‘청소년 자치조직’을 구성, 청소년 주도의 문화활동을 기획해 문화존 행사를 진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건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올해로 8년째 청소년 문화 존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매주 가족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유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건강인형극’

### 생활속 실천 과제 제시

### 어린이 생활습관 형성 기대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건강인형극 공연을 연다.

이번 인형극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운동·비만을 주

제로한 ‘오 박사의 남남작전’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흡연·음주에 방을 주제로한 ‘아빠 힘내세요’ 공연, 6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구강보건을 주제로한 ‘총치도깨비 탈출대소동’ 공연이 펼쳐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인형극 공연에 담아 어린이들이 쉽게 건강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개구 보건소는 매년 다양한 내용의 건강인형극 공연을 개최해 어린이와 보육시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더욱 양질의 건강인형극 공연을 위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공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 사랑방문화클럽, 문화 프로젝트 ‘출발’

### 성은학교 학생 방문... 문화소외계층 확대 노력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이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로 2011년 문화공헌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렸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활동 중인 ‘로스아미고스 기타 합주단’과 ‘아니마토 만들린 앙상블’, ‘보네르 플루트 오케스트라’ 등이 모인 문화공헌 팀 ‘드림’ 팀은 20일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특수교육기관 성은학교를 찾았다.

‘오감이 행복한다 드림 콘서트’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성은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지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연주에 참여한 사랑방문화클럽 회원들은 “성은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와 정서 및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평소 연주회나 공연장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오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공연을 즐기는 모습은 그 어떤 관객들보다도 밝고 활기차 보였다”고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 소감을 밝혔다.

## 광주시립도서관, 가정의 달 행사 ‘풍성’

광주시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가정의 달 기념 특별강좌 ‘부모가 갖춰야 할 절대내공, 긍정의 힘’이 17일에, ‘우리아이 행동

속 숨겨진 마음알기’ 강연이 24일에 각각 개최되며, 성인을 위한 야간 인문학 특별강좌로 ‘그림책의 심리학, 그림책 다 시읽기’ 강연이 24일과 31일 2회 개최되며,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홍세화씨의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인가’ 강연이 26일 개최된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아빠 놀이학교 교장으로 유명한 권오진씨와 함께하는 ‘하루 1분 부자로 친구같은 아빠되기’ 행사가 1일에는 시립도서관, 8일에는 오포도서관, 15일에는 신흔도서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특별기고

# 행복한 노후의 초석 국민연금



박벽수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장

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전업주부 등 여성 가입자가 최근 10년 동안 263만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성남지사의 경우 2010년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41만여명, 임의가입자 수는 3,200여명, 연금수급자는 43,500여명, 연금지급액은 연간 약 1,500억(월 평균 120억)원이 이르는 등 지역주민의 노후생활보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서민들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는 분에 대한 임의가입 가능 보합료를 인하(월126천원→월89천원) 한 한편, 전문자격증(CFP/AFP/사회복지사 등)을 보유한 직원들이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고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공단은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국민연금"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준비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가입자 2,000만 명 시대를 열어나가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금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객 생활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고객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기금투자다변화를 통해 장기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기금 규모에 걸 맞는 글로벌 기금운용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성남지사는 이러한 목표달성에 부응하고자 더 많은 시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행복노후설계센터'를 개소하여 성남시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자금 및 노후생활에 대한 종합정보를 원스탑(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기존의 중증·재심사에서 전등급(1~6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

래인 활동지원사업('11.10월 예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후빈곤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으로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평균 수명 100세 도래 등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임박하는 요즘,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초석(礎石)으로 삼고, 사보험(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 2막'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 “장애인 스포츠 발전 위해 최선을”

신상진 국회의원, 장애인수영연맹 명예회장 취임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원)이 지난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명예회장에 취임했다

다. 대한장애인수영연맹은 장애인수영의 생활화를 통해 장애인 체력향상과 재활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3월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이래 장애인수영 보급발전 및 우수선수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명예회장에 취임한 신상진 의원은 "명예회장으로서 대한장애인수영연맹과 장애인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 무역 전문인력 양성 수강생 50명 선착순 접수

성남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50명을 대상으로 '2011 성남시 무역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직장인임을 감안해 교육기간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회,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교육한다.

김진규 관세사, 김시균 무역보험공사 이사 등이 나와 무역계약, 무역실

무, 대금결제, FTA 대응방안, 전자무역 등의 교육 일정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무역기초에서 심화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FTA 관련 강좌가 개설돼 있어, 다변화·블록화 돼 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소기업업체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한·EU FTA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성남, 제3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오는 5월 3일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서 열려

성남시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제39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연다.

시는 이날 1천5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남시립국악단 공연과 초청 가수 추가열, 정수빈 씨의 효도 공연을 열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어 효행자, 장한아버이, 노인복지 기여 단체 및 기여자 등 총 23명에 대

한 표창 수여, 다 함께 어르신께 큰절, 어버이 은혜 노래 합창 등 기념식을 진행해 어른 공경과 효 미덕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전통의 경료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어버이날 행사를 열어 나누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한국폴리텍1대학성남캠퍼스 홍보자문위 개최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학장 김완수)는 19일 한국폴리텍대학 홍보자문위원회를 성남캠퍼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각 언론기관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홍보위원들이 참석하여 폴리텍대학의

전반적인 홍보활동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MBN, 연합뉴스, 주간경향, 광각커뮤니케이션, 법인 홍보팀장이 참석해 앞으로 폴리텍대학의 브랜드과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손학규 당선자 “통합의 정치 실현하겠다”

## 손학규 후보 51% 득표율 기록... 강재섭 후보 누르고 당선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누르고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의 풍향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실시된 분당을 보궐선거 투표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51%(41,570)의 득표율을 기록, 48.3%(39,382)의 득표율에 그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2천1백여표차로 따돌리고 승리를 안았다.

이날 분당을 보궐선거 투표율은 49.1%를 기록, 지난 2008년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45.3%보다 높아 손학규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분당이 한번도 총선과 대선 등에서 민주당에 텃밭을 뺏긴 적이 없는



없는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자존심을 지켜준 지역이었다

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충격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패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산층, 그중에서도 30,40대의 젊은층의 적극적 투표참여가 역전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투표가 마감된 오후 8시 YTN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54.2%,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 44.5%로 손학규 후보가 9.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당선이 확정된 후 가진 당선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당선자는 “민생이 어렵고 이 곳 중산층의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분당에서도 서민생활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갈갈이 찢겨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성남 수정·중원구 주민 80% 정비사업 찬성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단계 정비예정구역 설문조사서 드러나

성남 수정·중원구 주민 10명중 8명이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수정·중원구 2·3단계 정비예정구역 가옥주 및 세입자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 주민설문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가옥주는 ‘더 좋은 주택에서 거주가능(61.8%)’을 꼽았고 주택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가능(50.1%)’을, 상가세입자는 ‘보상비로 더 좋은 곳에서 영입가능(29.4%)’을 각각

꼽았다.

반면 19.0%를 차지한 정비사업 추진 반대 응답자의 주된 이유는 가옥주의 경우 ‘고가의 분양대금으로 입주 곤란(55%)’을, 주택세입자는 ‘더 비싼 타지의 입차료(78.2%)’를, 상가세입자는 ‘임대료 상승 부담(44.8%)’을 꼽았다.

정비사업 방식은 응답자의 59.7%가 주택재개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LH공사 사태로 이슈가 됐던 사업시행자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에서 지방공사를 신규로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44.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민영 방식

(24.8%)’, ‘LH공사가 추진(22.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비사업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9.5%가 1~3년 이내 조기 추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버스 전광판 광고, 라디오 홍보, 홈페이지 및 해당구역 주민센터 안내게시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전을 펼쳤다”면서 “이번 주민리서치 결과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수정·중원구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남 펜싱선수단, 전국 제패 달성

## ‘제40회 회장배 남녀 종별 선수권대회’ 우승

성남시 직장운동부 대표로 복인 펜싱 선수단이 15일 ‘제40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선수권대회’ 우승컵을 이 재명 성남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회는 지난 10일부터 전남 해남에서 개최되었고 성남시청 소속 선수 4명이 출전해 남현희 선수가 우승컵을 획득했다.

이 시장은 이정운 코치를 비롯한 남현희, 오하나, 이해선, 이나리 선수에게 우승을 축하하고 성남의 위상을 드높

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수단은 펜싱의 발전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펜싱 꿈나무 육성을 지원해 줄 것과 선수 부상에 대비한 의료진과 예비 선수 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성남 초등학교 펜싱부 창단에 대한 검토 및 선수 부상 방지와 치료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과 성남시 소속 선수 중 예비선수 선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 경기관광공사 사장 취임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이 오는 26일 제 5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한다.

황준기 신임 사장은 1955년 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거쳐 경기도 산업경제국장, 경제투자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여성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 분당을 보궐선거 투표율 49.1%

## 18대 총선 45.3%보다 높아... 최종 개표 관심 집중

4.27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당초 예상을 깨고 49.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표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가 마감된 오후 8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이 49.1%를 기록,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 45.3% 보다 무려 3.8%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이번 투표에는 총 유권자 16만1천634명중 8만1천636명이 투표에 참가해 49.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곡동으로 50.4%의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투표율이 가장 지역은 분당동으로 45.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인터뷰 /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 “성남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 중요하죠”



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남발전연합은 우리 성남을 사랑하는 모든 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성남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성남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고도제한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것이 그 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발전연합은 성남의 장기적 비전을 위해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남시민의 아픈곳을 긁어주고 살아 움직이는 그야말로 성남을 사랑하는 성남시민 모두의 연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른 성남의 장기비전 마련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거문화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립 취지에도 밝혔듯이 문화적 인프라구축과 주민자치역량 제고, 열린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대시민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예교실과 기수련교실은 운영중이고 세무·법률상담, 재개발 상담, 자녀진로·교육 상담등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관 면담, 국회활동등으로 결국 고도제한을 완화시키고야 말았습니. 이는 정말 자랑스런 결과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제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자연친화적이며 활기차서 인간미 뽐낸 풍기는 그런 모두가 살고 싶은 자랑스런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릉지에 형성된 본시가지의 경우 지금은 그것이 약점이지만 면밀한 도시설계를 통한다면 오히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모습의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남발전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민여러분 함께 꿈꿔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Q. 올해 역점사업은.  
A. 지난 2007년 6월 창립한 성남발전연합은 이제 창립 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최대현안이었던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제는 고도제한 완화에 따

Q. 성남발전연합이 지향하는 방향은.  
A. 성남발전연합은 성남의 역사를 바로세우고 그 속에서 성남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이주된 역사를 딛고 이만큼 성장한 우리 성남은 이제 당당히 명예회복을 선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긍심뿐만 아니고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해명과 명예회복을 받고

## 지역 현안 해결의 파수꾼 ‘성남발전연합’

### 고도제한 완화 산파역... 지역담론 문화형성 ‘앞장’

지난 2007년 6월 창립된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이 올해로 4돌을 맞는다. 성남발전연합은 그동안 성남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각계인사들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성남발전연합은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개최해 부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아닌 시민과 함께 숨쉬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성남지역의 최대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시민권기대회 등을 개최해 2단계 고도제한이 완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발전연합은 지난 2008년 8월 성남발전연합 창립 1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서울공향 현실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008년 10월에는 성남시 고도제한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합동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2008년 11월 11일 성남시청 앞에서 47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고도제

한철폐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합동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성남발전연합은 고도제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고도제한 철폐관련 서울공향 협의 방안,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국회 국방위 전달 등의 지속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같은 성남발전연합의 고도제한 완화투쟁의 결과와 시민들의 의지가 모여 지난 2010년 5월 2일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의 발표를 끌어내기에 이른다.

이처럼 성남발전연합은 지역 최대현안인 고도제한의 해결사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담론문화 형성을 위해 유명 인사를 초청해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활발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성남발전연합은 이같은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들과 공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성남발전연합 6층 대강당에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교육혁명’을 주제로 부모회 특강도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국내 유명학원 강사가 참여해 초·중·고등학생 자기주도 학습지도법,중·고등학생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드는 법,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습전략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성남발전연합을 이끌고 있는 신영수 상임대표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 작은 일 하나라도 귀 기울여 듣고 논의하고 토론했해 대안을 제시하는 성발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워인터뷰 | 윤숙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

# “나눔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터”

## 1인 1일 자원봉사 활성화 앞장... “따뜻한 성남 만드는 것이 꿈”

뉴스데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남의 훈을 가꾸어 가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파워인터뷰를 게재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지역을 가꾸어 가는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를 통해 성남의 희망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번에는 12만7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윤숙자 센터장을 통해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미래 비전을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은 기준에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시간 채우기라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문봉사단 활성화로 새롭게 가족단위봉사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역점사업으로 가져가고 싶은데요. 그것은 어디 특별한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내 가진 재능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청소년자원봉사, 전문봉사, 가족봉사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비전은.

쉽게 말씀 드리면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봉사활동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을 좀 더 용어화 시키면 나눔과 체험으로 행복한 성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일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들이 바로 저희 센터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살아왔던 삶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민사회나 NGO에서는 다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속에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기존에 제가 했었던 활동하고 무관한 것들이 아니라 그 연장 선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와서 봤을 때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따뜻한 세상, 그리고 이웃과 나누기 위한 활동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에 살아 왔듯이 여기서도 더 많은 그런 이웃에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가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은 줄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좀 더 체계화 시키는 것들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만명 정도였는데 지금 13만명을 육박한다면 양적으로 거의 13배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100여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53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에서도 전문봉사활동에도 좀 더 활성화 되고 그리고 가족단위 봉사활동이 주로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가족 단위 봉사활동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업참여, 기업연계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 현재 저희 센터에는 34개 기업 봉사단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나눔과 기부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 올해 주요 역점사업은.

좀 더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내용

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거나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상해보험, 그래서 활동 중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상해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처를 저희가 제대로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역할들이 배분이 되고 자원도 배분이 되고,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 활동 중에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되도록 센터에 등록되어서 연계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 동인의 성과를 꼽는다면, 초기 개소할 때는 자원봉사자 수가

-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1996년에 개소했습니다. 올해로 15년이 됐지요. 역할은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과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수요처를 연계시켜주는 것,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러하는 역할이 주요 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과 연계, 홍보 이 세 가지가 주요 사업이고 그것을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가 단체는.

현재 참가 단체는 3월말 기준으로 534개 단체, 12만7천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로 모여지게 되면 장점



# “소음피해 성남시가 배상하라”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재정신청... 주민 손 들어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분당구 주민들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성남시 등에 7천7백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재정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분당 아파트 주민 605명이 인접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 7천7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 8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난 2009년 7월 사용

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한 아파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약 28~51m 거리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입주주민들은 입주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 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관리·운

영자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에게 신청인 389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액 7천7백만원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개통이후에 입주했고 분양내내 상에 소음피해가 공지되었던 사실 등 여러 재정사례를 감안해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의 60%를 감액하여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교통 편리성을 누리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성남시 등 3개기관에서 향후 방음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심리극 기법 이용 심각성 교육

### 성남보호관찰소, 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한상익)는 27일 남보호관찰소 강당에서 별자리 사회심리극연구소 김영한 소장을 초빙해 보호관찰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프로그램'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강사로 초빙된 김영한 소장은 SBS TV 프로그램인 '자기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한 심리극 전문가로 폭력 성향이 강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역할바꾸기', '이중자 야기법' 등 심리극 기법을 이용,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폭력으로 보호관찰을 받

고 있던 중 프로그램에 참석한 김도훈(17)은 "심리극을 통해 누군가가 나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 웃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었다. 이번 기회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 한상익 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폭력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재활용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 광주, 구시청사 알뜰 베품시장 시민 호응

광주시가 지난 23일 구시청사에서 '알뜰 베품시장'을 개최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 베품시장에는 시민들이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화장품, 도서, 완구류 및 각종 생활용품 800여 개 품목이 판매되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객을 위한 풍선아트 이벤트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으로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기타동아리' 공연이 열려 가족단위의

전전한 주말놀이 공간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판매 참가자들은 판매 수익금의 10%를 불우이웃돕기에 자율 기부해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훈훈함을 더했다.

한편, 베품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버리면 쓰레기 밖에 되지 않는 물건을 베품시장에 오면 싼 값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베품시장은 우리 생활에 참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이웃사랑 '화제'

### 사랑의 줌도리 쌀 8개 경로당에 전달



성남수정 새마을금고(이사장 조영이)는 사랑의 줌도리 쌀 80포를 지난 13일 성남시에 기탁했다.

'줌도리'는 밥을 지을 때마다 '한줌씩 덜어' 따르 모아둔 쌀'로 회원들이 심사일반으로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 온

새마을금고 쌀 기부운동 이름이다.

성남수정 새마을금고는 평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에 꿈과 희망을 전해주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자 묵묵히 참 사랑을 실천해 오는 분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외롭게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관내 8개 경로당에 백미 800kg을 전달하여 달라고 기탁하였다.

이처럼 성남수정 새마을금고는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 어린이 기후변화 일일학교 확대

### 성남, 중학생까지... 21명 기후코디네이터 강사 배치

기후변화 일일교실은 성남시가 양성한 21명의 기후코디네이터 강사가 각 학교를 찾아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반별로 1명의 강사가, 중학교는 학년 단위의 그룹별로 4~5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은 PPT 영상자료와 성남시가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더워지는 지구,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게임, 푸드마일리지 등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재생종이 연필, 발전기자전거, 태양광조리개 등을 교

구로 실습 교육이 이어져 기후변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은 도시특성상 가정 상업시설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에 있다"면서 "기후변화 교실운영 뿐 아니라 시민기후교육전문가 양성 등 기후변화 교육사업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힘 받는다”

212억원 정비기금 선지급… 재개발 사업성 개선·정상화 기대

성남시는 본시가지 재개발 구역의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1단계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에 대해 정비기금 21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비기금은 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와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토지비·건물보상비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시는 당초 사업완료 후 정비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지급이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기금의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비기금은 당초 195억원을 지급하려했으나 도로망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부지의 건물보상비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해 약 17억원을 늘려 지급기로 했다.

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



두기자 회견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성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힌 내용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법령개정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 중에 있고, 분양세대수 증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대상 사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시·LH공사·주민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며 “그러나 성남시가 다각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고 사업관계자들이 노력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조만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분당구보건소,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오리초교와 협약식 체결… 건강 서비스 제공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우선, 지난 4일 오리초등학교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체성분검사와 건강행태설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분당구보건소는 앞으로 1년동안 오리초등생들의 구강, 영양, 운

동, 금연 및 절주, 성교육 등 건강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강축제 등을 개최한다.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11일에는 분당중학교와 협약식을 갖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전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좀 더 전문적이며 통합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건강생활실현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분당구 건강 관심도 경기도내 ‘최고’

지역사회건강조사서… 음주·흡연을 ‘최저’

경기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도시는 의정부시이며, 가장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도시는 성남시 분당구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도내 45개 보건소와 아주대학교 등 6개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가구를 방문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9세 이상 도민 41,033명을 대상으로 흡연·절주·운동·영양·구강·정신건강·안전의식 등 26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걷는 도시는 포천시로 나타났으며, 양평군은

가장 걷지 않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의 평균 걷기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은 42.1%로 전년 대비 7.1% 포인트 감소했다.

고위험 음주율(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2회 이상 마신 사람 비율)은 14.6%로 전년대비 2.8% 포인트 감소해 술을 좀 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성남 분당구가 가장 술을 조금 먹는 지역으로, 용인 처인구가 가장 술을 많이 먹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현재흡연율은 24.9%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가 줄어 술에 이어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성남 분당구가 가장 낮은 흡연율을 등두천시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성남 분당구는 음주율에 이어 흡연율까지 낮아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만율(체질량지수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역시 23.1%로 전년대비 0.3% 포인트가 감소하였고, 수원시 영통구가 가장 날씬한 지역으로, 연천군이 가장 뚱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건강수준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기보다 한 시점에서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 사업을 평가하거나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추세를 살핀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 ‘누리맵’ 모바일 서비스 개시

걷기 좋은 5개 테마 길과 주변 관광 정보 등 제공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걷고 싶은 길, 체험여행길, 평화누리길, 전통시장길 등 5개 테마 길과 도내 각종 시설물과 지도를 검색할 수 있는 누리맵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화창한 주말 집주변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하거나 여행길에 오르고 싶은 이들은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경기누리맵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소창에 경기누리맵 사이트(m.map.gg.go.kr)를 입력하면 양평 두물머리길, 수원 화성성곽길 등 경기도 관광명소와 찾아가는 길, 맛집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생생한 실시간 보기 기능이 있어 여행지에 가보지 않고도 경기도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가상체험해 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각종 축제나 공공기관,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도 연동되어 좋은 정보를 지인들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누리맵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기도의 아름다운 길들을 쉽게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가 경기도의 숨은 매력을 선보이는 좋은 여행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남시, 여성상 표창 대상자 공모

효행·사회봉사·학술예능 등 5개 부문

성남시는 모든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제24회 성남시여성상’ 표창대상자로 선정해 시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29일까지 효행·사회봉사·학술예

능·여성복지·지역경제 등 총 5개 부문의 대상자를 구청 및 동, 각 사회단체장 등에게 추천받는다.

성남시 여성상 수상 대상자의 ▲효행 부문은 아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워서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을 수상대상자로 한다.

또 ▲사회봉사부문은 개인 또는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불우이웃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 ▲학술·예능부문은 학술·연구, 예술·기능 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가르치고 발표함으로써 지방학문·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여성 ▲여성복지부문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남녀평등에 노력해 여성의 인권보호, 여

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공헌한 여성 ▲지역경제부문은 산업, 상공, 저축 증대,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수상 대상자로 한다.

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선정심의를 통해 부문별 각 1명씩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자는 오는 7월 ‘제16회 성남시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시 기념상패를 수여받게 된다.

건강칼럼

김현경 /성남의료생활협동조합 우리한의원 원장

# 건강한 성장이야기



얼마전 저희 아가씨가 제게 이제 5학년이 올라가는 초등학생 딸이기가 가슴이 나온다며 화들짝 놀라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니 성장에 많은 문제가 있었더군요.

제가 미리 미리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한 의사란 직종은 어디가든(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진맥을 해달라는 통에 집에서는 일 이야기를 전혀 안하는 편이라...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에 더 안타깝더군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갑작스레 성장강의와 무료 성장상담을 기획해서 하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키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성장치료를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심이 많다보니 온갖 속설과 잘못된 사실들도 혼용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 모지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무성 성장치료를 하며 억지로 아이의 키를 늘리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성장이란 흔히 생각하듯 키만 뼈쫘하게 키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이란 건강하게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키가 잘 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의 경우 건강상태의 또 다른 바로미터가 키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의 몸무게와 키의 변화입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는 달 단위로 아이의 몸무게와 키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현재 그 또래의 적정 속도로 자라고 있지 않음 경우라면, 혹은 갑자기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면 아이의 몸상태를 세심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이 아이의 몸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저신장인 경우 자기가 물려받은 한계를 뛰어넘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성장기에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가 물려받은 한계까지 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독 병약이를 많이 하거나 입이 짧은 아이가 커서 형제들보다 키가 작은 경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장치료를 의의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억지로 키를 잡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 하고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줌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자기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바를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치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성장치료의 기간이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되는 20세까지의 전 기간으로 잡습니다. 성장치료의 가장 난감한 경우는 계속 아이의 상태를 놔두었다가 성장기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사춘기 전후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치료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미리 관리를 했더라면 많이 클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장은 하루 아침에 초치기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한약재를 먹는 것만이 성장 치료는 아닙니다. 특별히 돈을 쓰지 않더라도 꾸준히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관찰하고 전문가를 찾아 의논하시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장 치료입니다. 공부와 성장은 모두 마찬가지로입니다. 초치기로는 큰 효과를 거둘 없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항상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장상태를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최소한 2회 정도는 아이의 성장률을 체크하고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체크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의 성장이 또래 성장의 평균을 잘쫓아가고 있는지,

② 내 아이가 몇 페센타일로 자라고 있는지(소아표준성장곡선상),

③ 몸무게와 키의 불균형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장애라 부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의 키와 체중이 표준성장곡선상 하위 3%인 경우

② 평균성장속도에 현격히 못미치는 경우(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의 경우 정상아가 1년에 5-6cm가 자라는데 만일 1년에 4cm 이하로 자란 경우는 성장장애로 판단합니다. 또한 생후 1년간 16cm이하인 경우, 만 1세-2세는 8cm이하인 경우 사춘기 전후로 7센티 이하인 경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평균 성장 속도를 참고하세요))

③ 같은 또래에 비해 10cm 작다면 성장장애를 의심할수 있습니다.

④ 골연령 측정시 만2년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⑤ 성장호르몬 검사시 정상이하인 경우는 성장장애를 의심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담당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아이가 정상범위에 있는 경우라도 아이의 성장률이 갑자기 저하되었거나, 큰 병을 앓고 난 이후라면 성장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아이의 성장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을 찾아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성장이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① 아이가 저체중, 허약아로 출생한 경우입니다

② 소화기가 약해서 잘 체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

③ 잦은 감기나 한번 감기에 걸리

면 다른 아이보다 오래 아픈 아이들

④ 예민하고 긴장을 잘 하는 아이들

⑤ 잠을 잘 안자고 자주 깨는 아이들

⑥ 큰병을 앓고 난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그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말그대로 잘자고 잘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아프지 않는 것이 성장을 위한 비법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이를 크게 키운다는 말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성장치료를 있어 부모님들이 주의하실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먹거리입니다. 요즘 한의원에서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성조숙증입니다.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여자에게는 8세이전(또는 유방발달이 8세이전, 음모발달이 9세이전) 남자에게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 성징이 빨리 오는 경우는 성장이 조기에 끝나기 때문에 최종성장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성장도 성장이겠지만 조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아이가 겪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성조숙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옛날 보다 초경이 빨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화살이 제기되고 있지만 첫째, 보통 비만한 경우 초경연령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지방에서 만들어진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작용하여 사춘기개시를 촉진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여아의 체중이 40킬로그램일때, 체지방률이 높을때 초경연령이 빨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장촉진제, 고기를 키우는데 사용되는 호르몬제, 환경 호르몬 등이 영향을 줄수 있지 않냐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먹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건강한 먹거리, 담백한 먹거리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 분당차병원,골다공증 클리닉 운영

5월 3일 공개 강좌 · 골다공증 예방 앞장

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최중인)은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분당차병원 지하 2층 대강당에서 골다공증 공개강좌 '행복한

모녀를 위한 무료 골다공증 클리닉'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골다공증이란(정형외과 윤형구 교수) ▲골다공증의 약물치

료(내분비내과 김수경 교수) ▲골다공증의 합병증 및 치료(정형외과 신동은 교수) ▲골다공증 바로 알기(가정의학과 김문중 교수) ▲질의를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무료 골밀도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골다공증은 주로 50대 이상의 폐경 여성뿐 아니라 20~30대 젊은 여성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타민, 칼슘, 단백질 등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함께 평소 자신의 건

강상태를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50대 이상 폐경 여성이라면 매년 골다공증 정기검진을 통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장 김희천 교수는 "골다공증은 평소 꾸준한 관심과 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공개강좌는 여성 건강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골다공증의 합병증, 치료 원칙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남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 멸종위기종 2급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삿발견

성남시 주요 산림지역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하늘다람쥐, 무산쇠족제비, 삿의 흔적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시민 자연환경모니터들과 함께 영장산, 청계산 등 주요 산림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348개의 지점에서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등 총 8과 12종의 포유류 흔적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발견된 야생동물 주요 흔적은 갈현동 일원 굴참나무 아래의 하늘다람쥐 배설물을 비롯해 청계산 옛골 일원의 무산쇠족제비 사체, 인능산 고산골과 삼곡동 지역, 영장산 울동 일원의 삿 발자국과 배설물 등이다.

시는 이 야생동물 흔적에 대한 전문가 자문(국립생물자원관 한상훈 박사)을 통해 각종(類)의 흔적이 맞음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에 흔적을 발견한 중 가운데 '하늘다람쥐'는 제328호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시는 그동안 남한산성 일원에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왔으나 실제 배설물과 같은 흔적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체로 발견된 '무산쇠족제비' 또한 성남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 일반 족제비와는 달리 크기가 아주 작고, 배 아래면에 흰털이 있는 것이 특징인 종이다.

이들 야생동물은 개발 등 서식환경의 악화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해 지난 2005년도에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속에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된 것은 그만큼 성남의 생태환경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서식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울동 생태학습원' 개장

### 장애아 자연 오감 체험 편의 시설 자연체험 학습장

성남시 분당구 울동 359번지에 '생태학습원'이 조성돼 오는 20일 문을 연다.

시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 8개월여간 9억8천여만원을 투입, 울동공원 인근에 시민들이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 학습할 수 있는 5,308㎡ 규모의 생태교육 학습장을 조성했다.

생태학습원에는 식물과 흙, 물 등 자연의 이해를 돕는 화훼체험 기초학습장과 식물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식물원, 화원 등 식물 생태관, 그리고 채소와 화훼 등을 직접 가꾸볼 수 있는 아외텃밭 등 실내·외 체험관이 마련됐다.

특히 발달 장애아들의 자연 오감 체험 편의 시설이 강화돼 지적 장애아, 자폐아 등은 채소·과

수·허브원에서 채소와 과일, 허브를 재배하고 맛보며 미각을 체험할 수 있다. 화원에서는 허브와 화관목을 보며 정서함양과 함께 시각을 통한 집중력을 기르고, 벽천 연못에서는 떨어지는 물 소리를 느끼며 청각을 키운다.

또한, 꽃, 과일 등의 향기를 맡으며 후각을 느끼는 등 감각별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태학습원은 장애아동의 오감 체험 편의 시설을 더욱 강화한 일반시민 모두의 자연 학습체험장"이라면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들이 서로 오감뿐 아니라 마음도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험학습원 운영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말많은 판교 쓰레기 소각장 '인수'

## 한국환경공단,환경 안전성 검증... 4곳 쓰레기집하시설은인수 보류

성남시가 판교지역에 건설된 쓰레기 소각장(판교크린타워) 시설물을 LH공사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판교 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낮아 유해물질 등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잇따라 제기돼 시공사인 LH공사로부터 소각장 인수를 보류해 왔으나 한국환경공단에 용역 의뢰한 '판교 크린타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돼 오는 5월초 소각장을 인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LH공사가 500억원을 들여 완공한 판교 소각장은 시설물 위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인근 서울공항공의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돼 소각장 굴뚝의 최대 높이는 58.8m로 제한돼 건설됐다.

'백연(흰 연기) 저감장치'가 설치된 소각시설로 지어졌지만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 높이 25층(75m)보다 낮아기는 날 떨어지거나 기압이 낮은 날 소각장의 유해물질 등이 주변 아파트 지역으로 퍼질 우려를 낳았다.



이 시설물의 환경안전성에 대해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측은 판교지역 주민들이 직접 조사 의뢰한 판교 소각장 주변 '동서남북' 4개 지점에서 최근 3개월동안 대기 중 다이옥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오존, 납 등 유해물질 배출량을 연속 측정했다.

측정결과 유해물질 배출량은 법적 환경기준치 0.6pg(피코그램)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 0.04pg으로 측정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판교소각장시설물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해 인수·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러나 판교지역 4곳에 설치된 쓰레기집하시설(판

교 크린넷)은 인수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7월 총 600억원을 들여 LH공사가 준공한 4곳 쓰레기집하시설은 여름철 발생하는 악취와 쓰레기투입구의 잦은 고장 등으로 민원이 잦은데다가 LH공사가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음에도 냉담한 주민 반응에 이어 많은 돈을 들인 시설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안타깝다는 주민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4곳 쓰레기집하시설의 악취와 설비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5월 전문기관에 정밀한 기술진단을 의뢰해 결과에 따라 시설물 인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땅 없이도 전원생활 즐긴다"

## 경기도, 전국최초 실버농장 조성... 입주자 모집

경기도가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큰 걸림돌인 토지 구입과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60세 이상 도시민이 저렴한 가격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실버농장'을 조성하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실버농장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촌마을 단석리에 조성한 곳으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과 텃밭 등을 임대해 생활할 수 있다. 특히 1년 단위로 재입찰해야 하는 '체제형 주말농장'과 달리 임대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3.68㎡의 면적의 통나무집과 약 330㎡ 규모의 텃밭이 제공된다. 텃밭은 필요하면 더 임대할 수 있다. 야외 식탁, 냇가 물놀이 시설이 제공

되며 45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 집에는 TV, 에어컨, 조리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 마을 주민들이 배추, 고추, 마늘, 상추 등 친환경 재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시민을 지도하기로 해 귀농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먹을거리 자급이 가능해서 도시 생활에 비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산촌에 위치한 만큼 산나물 캐기, 야생 버섯 따기, 등산, 삼림욕, 계곡 물놀이 등 전형적인 산촌마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주변에는 국내 최대의 스키장, 민간 미술관, 저수지, 일당산 등이 위치해 가족 단위 관광을 겸하기도 충분하다.

- 문의 : (031)8008-4413

# 중원구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순항'

## 성남지역 최초 민간개발방식 시행 오는 6월 조합설립창립총회 '박차'

성남시와 LH공사간의 재개발 논의가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지력으로 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신흥역 인근에 위치한 재개발 2단계 사업장인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다.

도환중1구역은 성남에서 처음 추진되는 민개발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난 2010년 8월 주민 72%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조합설립이 순항할 경우 성남도환중1구역은 오는 6월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오는 8월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도환중1구역은 용적률 400%에 이르는 주거복합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본계획부터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조합측은 전체 주민의 75%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도환중1구역은 동의서 징구 한달 만에 70%에 이르는 동의서를 징구해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락손 위원장은 "도환중1구역은 이미 외부 투자자 비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의서 징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성 위원장은 "과거 사업에 반대했던 도로변 주민들도 이제는 조합에 참여해 사업을 나누는 상황으로 광명로변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며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니 인터뷰

성락손 성남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 위원장

## “민간주도 사업 성공 위해 주민 뜻 하나로”

“도환중1구역은 이미 외부 투자자 비율이 60%를 넘어선 만큼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동의서 징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락손 성남중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일성이다.

성 위원장은 “과거 사업에 반대했던 도로변 주민들도 이제는 조합에 참여해 사업을 나누는 상황으로 광명로변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해 조합에 참여하고 있다”며 “성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민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도환 1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시면  
제가 성남에서 약 30~40년을 살고 있는데요. 외부에 나가서 성남 중동

이다 하면 상당히 전대를 받았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도대체 이것은 세상에 없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왜 성남에 거주하면서 전대를 왜 받느냐. 또 분담이 늦게 생겼습니까. 성남이 먼저 생겼습니까.

분담이 늦게 시작을 했어도 분담은 대우를 받는데 성남에는 피난민 식으로 갖다 버린 식의 도시인데 왜 이렇게 전대를 받느냐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내가 한 번 희생을 해줘야 되겠다.

이전에도 몇 분이 찾아 와 가지고 우리가 살 길은 개발 밖에 없으니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집합촌을 없게 해야겠습니다. 몇 번을 상의하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동의서 증거에 많은 애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도로변에 계신 분들은 이권 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중간에 계신 분들은 사업상 없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발란스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예로점 현재는 68%로 정도 받았어요. 등

의서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로 정도 더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합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설립은 우리가 총회를 6월에 총회를 할 예정에 놓여 있고요.  
또 이달 27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칼럼 류수남

# 막말은 지역만 혼란케 한다

국회의원의 말이 쇼라면 시의원의 말은 무엇인가?  
 성남시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장마철에 소나기 오듯 한다.  
 호화청사라는기후(?)탓일까?  
 한나라와 민주, 양당의원들이 서로 질세라 장군명군식의 회견들을 해낸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교섭단체가 해체되면서 개인 또는 몇 몇 의원들이 공동명의로 회견을 한다. 그런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했던가?  
 거창한 회견의 일립 말과는 달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  
 서로 상대를 탓하거나 떠넘기는 볼 상 사나운 회견들이다.  
 그렇다보니 자기과시나 변명을 위한 회견 같다.  
 아니면 기자들을 혼란시키는 것 같기도 하다.  
 공당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회견이라면 때로는 기자들이나 지역을 긴장시키고 궁극에 해야 한다.  
 그런데 회견은 자기변명이나 상대에 떠넘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나 대안 제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런 회견을 밥 먹듯 하는 의회는 기자들의 전용공간이 한 곳도 없다.  
 물론 기자실수에 따라 회견거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견도 자주 없는 성남시가 기자들에게 전용공간을 3개 씩이나 주는 최상의 특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현상은 전국에서 성남시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 개라도 시에 반납해 다른 용도로 쓰게 하자는 양심적인 기자들은 없는 것 같다.  
 호화청사인 시청사와 의회건물과는 왕래통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렇다 보니 식당이나 휴먼구역도 같이 사용한다.  
 그러나 기자실만은 아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회견은 당대표실이나 회의실 또는 세미나실에서 한다.  
 이는 권력에 기생했던 일부작통기자들이 관을 치는 호화청사의 비정상적인 현상 때문일 것이다.  
 기자실은 3개인데 어느 곳에서 할 것인가라는 의원들의 변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의미를 아는 의원이라면 어느 기자실에서 할지는 알 수 있다.  
 물론 회견이 꼭 기자실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화급을 다루는 부득한 경우이다.  
 그러나 의회의 경우는 다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듯 많은 회견을 하는데도

나오나?  
 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도 더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렇다면 8년여 동안 추진해오던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자고 한 것이 쇼였 단 말인가?  
 시립병원의 운영방안에 대해 소신을 말하는 신상진위원의 말이 쇼였다면 재선이상의 시의원들은 그동안 쇼만 구경했던 말인가?  
 그동안은 아무 말 이 없다가 이런 극단적인 막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표현하면 민주당의원들은 무슨 구육인가?  
 말들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막말은 지역만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지역이 혼란스런 것은 나, 너 없이 말들을 함부로 해대서가 아닌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전부가 신중치 못한 막말들을 해서 지역이 이토록 시끄러운 것이다.  
 공인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반상과 공노는 언행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 남탓 말고 실시구시(實事求是)의 의정 하라

## 반상과 공노는 언행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정작 보고 싶은 회견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입처 운운하며 시비 걸던 짝퉁기자들은 말한 마디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성남주재 일부작통기자들의 자질이요 수준이다.  
 또 여담을 자처하며 한나라당과 건건이 각을 세우는 민주당의원들도 이해가 안 된다.  
 민주당의원들은 먼저 전국을 달군 이숙정 에 대한 참회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또 본인도 작금의 사태에 억울하다든지, 잘못 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한마디는 했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은물론 조직과 또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기본예의이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별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10일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 문화 복지위원들의 회견은 이해가 안 된다.  
 이들은 신상진 국회의원을 거론하며 더 이상 시립의료원에 관련한 정치적 쇼를 중단하라며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표현을 했다.  
 구시가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하겠다는 시립의료원문제에 왜 정치적 쇼라는 소리가

곧 때가 돌아오나?  
 또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부와 한나라당을제외한 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조례발의를 하지는 제안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앞으로 민주당의원들은 시정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葛藤(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인정하자고 한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  
 왜 일구이언하나? 의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의정은 없다.  
 이거야 말로 쇼 아닌가?  
 남의 탓만 말고 실시구시(實事求是)의 의정을 하라.  
 신상진 의원을 양두구육으로

그래서 침묵은 병어리처럼 하고 말은 입금처럼 하라했다.  
 토끼해를 살아가는 시의원들은 앞으로 귀를 토끼처럼 세우고 도처에서 나는 원성을 들어라.  
 시의원들의 자질과 인성과 그리고 그릇된 언행에 멍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머지않아 시정과 의정의 죄인에 이어 공천의 죄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때가오고 있다.  
 인성이나 자질을 갖춘 일꾼보다는 자신에 맹종하는 심부름꾼을 공천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공천권자와 시의원들은 명심불망할 대목이다.  
 유난무난(有難無難)의 의회를 보니 지역은 암담하다.

## 뉴스데이

newsday.or.kr

|   |   |
|---|---|
| <p>발행 · 편집인 : 모동희</p> <p>등록일 : 2005년 9월 30일</p> <p>등록번호 : 경기 다00907</p> | <p>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p> <p>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17 영성빌딩5층</p> <p>구독 · 광고 문의 : 031-721-9922</p> <p>팩스 : 031-721-9921</p>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뉴스데이

newsday.or.kr

디자인세상  
인터플러스

inter-plus.co.kr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3D/CI/BI  
카드라프/팜플렛/기타 홍보물

제45호 | 발행일 : 2011. 5. 2. |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10만 봉사자들이 성남을 바꾼다”



### INDEX

|                            |    |                            |     |
|----------------------------|----|----------------------------|-----|
| 0 '섬유산업의 신화를 새롭게 쓴다'       | 3면 | 0 나눔으로 행복한 공동체 만들터         | 9면  |
| 0 성남 판교지구 2단계 지적공부 확정      | 4면 | 0 성남수정 새마을금고, 이웃사랑 '화제'    | 10면 |
| 0 손학규 당선자, "통합의 정치 실현하겠다"  | 7면 | 0 분당구 건강 관심도 경기도내 '최고'     | 11면 |
| 0 성남지역 현안 해결의 파수꾼 '성남발전연합' | 8면 | 0 중원구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순항' | 14면 |

## 전화기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세계 7대 자연경관 대한민국의 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연 분야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가 마침내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합니다.  
국가브랜드를 한 차원 높일 절호의 기회, 대한민국이 당신의 한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화투표 방법

001-1588-7715 를 누르고,  
"빠~" 소리 후 7715(제주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 ▶문자투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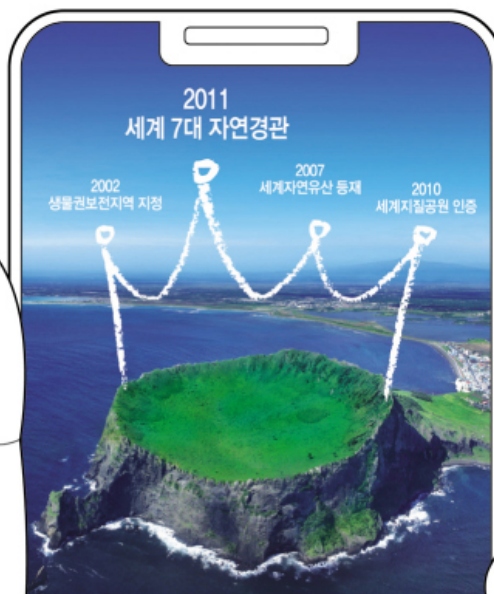
한글로 제주, 영문으로 jeju 또는 JEJU 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001-1588-7715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단, 문자투표는 4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인터넷투표 방법

www.jeju7w.com 접속, 인터넷투표하기에서  
투표하러 바로가기 클릭,

www.new7wonders.com의 창이 뜨면  
투표하시면 됩니다!

→ 제주도 등 7개 후보지 선택 → 회원등록 → 수신 이메일 확인  
→ 링크 → 투표 완료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Jeju  
New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